

일주문

사도세자 기신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6월 22일 오후 7시 용주사에서 사도세자 249주기 기신제를 봉행한다. (031)234-0040

법주사 특별 수련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7월 25~28일 법주사 능인수련원에서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 초청 금강경 참선수행 특별수련법회를 봉행한다.

은혜사·영천시 친선 축구대회 영천 은혜사 주지 단관 스님은 영천경찰서와 함께 영천시 내 풋살경기장에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불국사 명상음악 국제 시연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5월 24일 LA 스테이트 플레이하우스(State Playhouse)에서 불국사 합창단의 선·명상음악 시연을 선보였다.

고운사 산채요리경연대회 금상 수상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5월 13~15일 서울산업통신진흥원에서 개최된 2011 대한민국 산채요리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송광사 새벽예불 음반 나옴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송광사 새벽예불을 국내 최초로 DSD 5.0 채널 서라운드 방식으로 녹음한 <Echoes of the great pines>을 출시했다.

봉선사 연꽃 축제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인목 스님은 6월 22~27일 23일 2011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선학원 만해 스님 추모다례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6월 29일 오전 10시 선학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67주년 추모다례제 봉행한다.

임제록 무료강좌 개설 해운사 주지 덕산 스님은 6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청주시청 건너편 불교신행회관 5층에서 임제록 무료강좌를 연다. (016)305-6066

금강노인문화센터 자살예방특강 관인철 금강노인문화센터 관장은 6월 16일 경남자살예방협회 이주경 상담실장을 초빙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만해 정신 잇는다

##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100주년 맞아 법인화 추진 등 계획 밝혀

“불교문화 예술 창달과 생활불교 실천에 앞장서는 젊은 지도자 양성과 청소년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이하 한불청)회장 도각 스님(태고종 종정 예경실장)은 6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법회에서 청년인재와 지도자 양성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각 스님은 “우리민족의 시대적 사명이자 마지막 민족적 과제인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청년, 청소년 및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민족관과 국가관을 심어주는 일이 중요하다”며 인재발사와 함께 법인화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뜻을 밝혔다.

“법인화를 추진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법인화가 늦춰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종단 및 관련 행정부처와 상의해 법인화 추진에 전력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불청은 1911년 6월 15일 하동 쌍계사에서 만해 스님을 초대회장으로 59명의 청년 스님이 모인 가운데 ‘조선불교청년회’ 발기 창립이 시조가 됐다. 조선불교청년회는 1919년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의 참가에 공헌 한 이후 1924년 각황사에서 총회를 열고 간사제를 총재제로 바꿨다.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조직을 변경해 활동하다 1944년 만해 스님이



열반하고, 광복을 맞으면서 1947년 한국불교청년회로 개명, 이용조 회장을 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불청과 조계종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는 만해 스님을 초대 총재로 조선불교청년회에 뿌리를 두고 이어오다 광복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로 나뉘어 졌다.

1990년 대 들어 조직은 불교상담소 및 청소년 지도연구원 운영, 태고사 참나찾기 수련대회 개최, 마음의 전화개동, 참나청소년통일문화예술대전, 참나찾기 팔관재 한가족 명상요가 교실 등을 진행하며 산중불교, 기복불교, 늙은불교를 버리고 대중불교, 현대불교, 젊은불교로 개혁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후 2009년 청년조직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강화, 생활불교 구현과 청소년 선도 육성의 창립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도각 스님은 “재 개명을 통해 평화통일과 불교유신사상을 이어가고 화쟁의 원칙, 회통의 정신, 무애의 실천 등 중도사상으로 한불청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992년부터 회장을 역임해 온 도각 스님은 참나찾기수련원과 선심리치료명상 상담 전화인 ‘마음의 전화’를 통해 웰빙·명상문화 및 명상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불자들의 심신수련과 고민상담 등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 왔다. 매년 대한민국청소년민족문화예술대전,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수식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면서 불교청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소년 순수예술성 개발을 위한 참나찾기 운동은 199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미술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면서 일정 기간동안 8가지 계율[八分齋戒]를 지켜 절제와 순결, 청정한 청소년 선도문화를 이끌어 왔다. 특히 통일과 민족문화라는 공동 논제를 다양하게 작품화 하면서 청소년과 지도자들간 소통,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상연 기자

# 동국대, 출신 언론인 뭉치다

## 남산미디어포럼 창립... 초대 회장에 하동근 재능TV 사장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이 하나로 뭉쳤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6월 15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동문 출신 언론인이 주축으로 구성된 남산미디어포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하동근 재능TV 사장, 최맹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부사장, 이성수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정책협력실장 등 70여 동문 언론인이 참석했다.

초대 회장으로는 하동근 재능TV 사장이 선출됐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는 투철한 기자정신과 모교발전에 대한 기여로 동문언론인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하동근 초대 회장은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져 무척 기쁘다”며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앞으로 이 포럼이 잘 이어져 동국대 출신 언론인들이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산미디어포럼은 앞으로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학문적 교류를 위한 사업 >정책 대안의 도출 및 이를 확산시키는 사업 >사회발전 관련 정책 연구 사업 >회보 발간 및 출판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대여라는 말 없게 노력해달라”

## 의례 반환 주역 박병선 박사 등 인터뷰



박병선 박사(사진 좌)와 자크 랑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기자회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45년 만에 프랑스에 약탈됐던 외규장각도서가 모두 돌아왔다. 6월 11일 광화문에서는 의례귀환을 축하하는 국민환영행사가 열렸다. 같은 날, 행사에 앞서 이번 의례 반환에 중추적 역할을 한 재벌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와 자크 랑 프랑스 문화부 장관, 뽁상 베르제 파리 제7대학 총장, 박흥신 주불 한국대사가 국립중앙박물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병선 박사는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다”며 벅찬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박 박사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던 외규장각의 297권을 발견해 문화재 반환운동의 불씨를 붙인 인물이다.

박병선 박사는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국립도서관 창고에서 의례를 찾았다”고 회고했다.

박 박사는 “의례가 다시 프랑스로 가지 않고 영원히 한국 땅에 남아있도록, 또한 대여라는 말이 없어도 꼭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82살의 노령이지만, 박병선 박사는 우리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그녀는 “올해 병인양요 때 프랑스합대장이 본국으로 보낸 자료집을 정리하고 관에서 본국으로 보낸 독립운동 관

련 자료를 발굴해 한국독립 운동사를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12년간 프랑스 문화부장관을 지낸 자크 랑 프랑스 장관은 다수 프랑스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례 귀환을 이룬 1등공신이다. 랑 프랑스 장관은 사르코지 대통령을 설득해 국가 간 약속은 신뢰와 우애 차원에서 지켜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외규장각도서반환은 영구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방식이다. 자크 랑 장관은 “의례상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반환이다”라고 강조했다.

랑 프랑스 장관은 “프랑스 정부가 대여를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반환이나 대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례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뽁상 베르제 파리7대학 총장은 외규장각도서반환지시단체를 결성하여 ‘르몽드’지에 기고하는 등 프랑스 내 여론을 주도했다. 베르제 총장도 “있다는 것과 갖고 있다는 것은 철학적 문제”라면서 “의례가 서울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에는 이번에 돌려받은 의례 외에 <직지심체요절>과 <왕오천축국전> 등 우리 불교문화재가 남아 있다. 조동섭 기자

**| 社告 | 자비의 미얀마 돕기 DREAM 꿈**

인구의 89%가 불자인 나라, 미얀마 불자의 희망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양곤 내인미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종합대학교 지원
- 석수가 부족한 마을에 공동 우물 건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 불자 어린이 학용품 지원
- 전달 가능한 물품 지원

● 후원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 의 : 미얀마문화원 02)733-5670 / 현대불교신문 02)2004-8214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얀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 연간캠페인

# 무상공존자 문화 도암선사 문도 전법전당

佛祖로부터 達磨禪師와 處寂禪師를 거쳐 無相空尊者로 이어진 禪旨와 禪風을 傳하고자 佛祖 75代孫, 無相空尊者 41世 門下인 道庵禪師는 法悟見知한 因緣에 75位의 歷代祖師를 證明法師로 하여 傳法堂을 開壇하고 不思議한 寂靜妙法을 綿綿受持케 하노라

道庵禪師傳法偈

본래가 청정함인데 무엇을 닦고자 하는가  
취함이 없으면 여여하여 움직임 없느니라

傳法弟子

- |              |              |              |
|--------------|--------------|--------------|
| 효원 능인 (曉圓能仁) | 설원 연지 (說圓蓮知) | 자원 운담 (慈圓雲潭) |
| 진원 능원 (眞圓能元) | 일원 능혜 (一圓能慧) | 혜원 능각 (慧圓能覺) |
| 초원 임덕 (初圓林德) | 녹원 경원 (綠垣鏡元) | 시원 태경 (視圓胎鏡) |
| 심원 능효 (心圓能曉) | 지원 능안 (智圓能安) |              |

전당일 : 불기 2555년 음력 4월 29일

無相空尊者 門下 道庵禪師 門徒會

www.arahan.org / 문의처 031)753-3360

#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 단기출가자 및 행자 모집

- ① 기간 : 일주일 이상 자유, 전액무료
- ① 대상 :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① 행자 생활에 준하며 사찰의 기도, 참선, 공부, 율력 등 모든 수행에 동참
- ① 단체 시간외 1인 1실, 숙박
- ① 수련 후 바로 출가할 경우 모든 뒷바라지
- ① 대구권결과 감포 무문관 선방에서수행

※ 행자(예비스님)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 무문관 재가수행자 및 스님 모집

- ① 입방 후 문 폐쇄, 하루 한끼 공양 제공
- ① 연령 제한 없음. 남,녀 선착순
- ① 기간 : 보름이상 자유
- ① 입방날짜는 개인별로 함
- ① 동참금 있음
- ① 문의 : 054)753-8228

※ 감포무문관에서 동안거 입방하실 스님 모집합니다.

- 대상 : 법랍 10년 이상인 비구, 비구니
-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2488-8228

## 회주우학스님의 신간

“하루 한가지 마음공부법”, “감사하고 사랑하며”

쾌적한 법당형 극락 납골 봉안당

문의 : 053)474-8228, 010-6296-0108